



NH투자증권

MTS 종목 비교 분석 서비스

NH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위해 지난 2일부터 QV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종목 비교 분석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종목 VS 종목'은 NH투자증권의 자체 로보어드바이저가 진단하는 종목 점수를 기초로,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과 동일 업종의 다른 종목을 비교해 준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종목과 투자 매력도를 비교하면서 투자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생Buy리포트' 서비스도 추가로 신규 제공된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제공하는 투자이견 매수(Buy) 종목들에 대한 상승 여력을 살펴볼 수 있다. 종목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리기 전에 목표주가와 현재주가의 괴리율을 통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하나금융투자

리자드 ELS 등 3종 공모

하나금융투자는 쿠폰 경쟁력이 있는 리자드 ELS 등 과생결합상품 총 3종을 6일까지 모집한다. 먼저 미국지수(S&P500), 유럽지수(EuroSTOXX50), 일본지수(NIKKEI 225)를 기초자산으로 연 4.8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8650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미국지수(S&P500), 유럽지수(EuroSTOXX50), 일본지수(NIKKEI225)를 기초자산으로 연 5.1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8651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김문호 기자 km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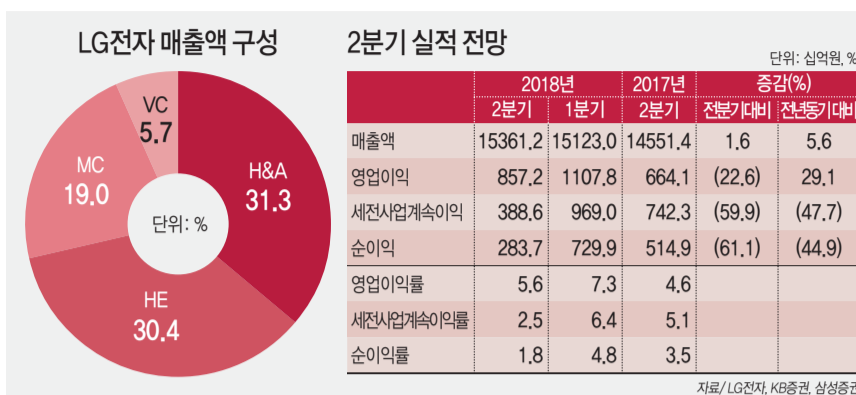
KB증권

국제신용등급 'A-' 획득

KB증권은 4일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S&P (Standard and Poor's)로부터 국제신용등급 'A-'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기신용등급 'A-'는 국내 시중 증권사가 획득한 국제신용등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S&P는 KB증권을 KB금융그룹의 핵심회사로 평가하며, 국내 증권시장에서 확고한 시장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월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합병으로 출범한 KB증권은 2018년 1분기 말 기준 KB금융그룹 내 순이익 기여도 8.1%를 차지하는 등 그룹 내 선도 계열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룹 내 시너지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LG전자, 스마트폰 '반짝' 흥행... 실적 '심표'

영업익 전분기비 22.6% 감소
MC·VC 부문 영업손실 예상
지분법 이익에서도 적자 우려



LG전자가 전 분기 대비 후퇴한 2분기 실적을 내놓을 전망이다. '후계자' 꼬리표를 떼고 재계 서열 4위 그룹 지휘봉을 잡은 구광모 회장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LG전자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8572억원이다. 예상대로라면 전분기 대비 -22.6% 줄어든다. 증권가 예상 평균 영업이익 8730억원보다 낮다.

매출액은 15조3612억원으로 1.6% 증가가 예상된다.

부분별 영업이익은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에서 1721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VC부문도 154억원 영업손실이 예고됐다. 1분기 168억원 영업흑자를 낸 LG이노텍도 219억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그나마 생활가전(H&A, 5348억원), 홈엔터테인먼트(HE, 4300억원), 기업 간 거래(B2B, 754억원), 기타(391억원) 등이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SJ(조성진 부회장)'의 마법은 반짝효과에 그쳤다.

지난 2010년 LG전자는 폭풍에 휘말린 뚝단배와 같았다. 불과 1년 전인 2009년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LG전자는 2010년 들어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다. 피쳐폰(일반 휴대전화) 시대 승승장구했던 휴대전화 사업이 스마트폰 등장이라는 시류를 읽지 못해 뒤처지기 시작한 것이 결정타였다.

연구개발(R&D) 등 기업의 내실보다는 외형이나 포장에만 집중했던 당시 경영진의 판단ミス도 더해졌다. 경영위기가 심각해지자 LG는 구본무 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오너가 일원인 구본준 부회장을 구원투수로 투입했다. 임기 중 대표를 바꾸는 전례가 거의 없는 LG그룹의 전통을 생각하면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당시 LG전자가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대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돈을 버는데 있다. 미래에 대한 충실한 대비가 현재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 LG그룹은 2016년 또 한 번 승부수를 띄운다. 조 부회장을 원톱에 앉힌 것. 그러나 증권가에

서는 지난해 7368억원의 적자를 낸 MC 사업부문이 올해도 5794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스마트폰 부진에는 방탄소년단(BTS)을 모델로 기용하는 등 스타마케팅에도 나섰지만 되레 마케팅비용이 증가해 손실폭만 키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4월에는 LG전자가 ZKW를 약 1조4400억원에 인수하면서 전장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신통치 않다. LG전자는 2013년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VC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전장 사업을 강화해왔지만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다. LG전자 VC사업본부는 지난해 영업손실 101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170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분법 이익도 적자가 우려된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낸 LG디스플레이에서도 올해 1895억원 규모의 지분법 손실이 예상된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 탓에 지난 1분기 6년 만에 첫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삼성증권 이종욱 연구원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LG디스플레이의 우려를 반영해 2017년과 2018년 지분법 손실을 각각 1620억원, 1895억원으로 추정한다"면서 "이는 LGD 순손실을 각각 4000억원과 5000억원으로 가정한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LG전자의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8배 아래서 거래되고 있다. 과거 PER이 8배 밑으로 떨어진 적은 딱 3번이다. 리만사태(2008년), 피쳐폰 부진(2010년), MC사업부 적자전환과 패널 가격 상승(2017년) 등의 시기다.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대차증권은 최근 환율이 TV 사업 부문에 비우호적이라며 LG전자의 목표주가를 14만3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내렸다. KB증권은 13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내렸다. 삼성증권도 목표주가를 10만5000원으로 하향했다.

재계와 LG 내에서는 구 회장과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보여줄 히든 카드에 주목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 60조원 시대를 연 LG전자가 그 핵심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특히 디스플레이·자동차전장 등 LG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첨단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맥쿼리에 날세운 플랫폼파트너스 "금융위 승인받아 주총 열 것"

MKIF가 주총 제안 거절 땀 강수
논란 장기화 속 정치권까지 가세

〈맥쿼리인프라 투자 SOC vs 타 민간·재정 SOC〉

도로명	보유회사	총거리 (km)	요금(원)	km당 요금(원)	경부 대비	외곽 대비	기점	종점
인천대교	맥쿼리	21.4	9,400	440	9.8배	5.0배	인천연수	인천공항
공항공속도로	맥쿼리	36.6	6,600	181	4.0배	2.0배	경기도양	인천공항
서울-춘천	맥쿼리	61.4	5,700	93	2.1배	2.1배	미사	춘천
경부	재정도로	415.4	18,600	45			서울	부산
서울외곽순환	국민연금	36.3	3,200	88			일산	퇴계원

*인천대교 요금은 km당 440원으로 재정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대비 9.8배,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대비 5.0배 높음.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요금은 km당 93원으로 경부고속도로 대비 2.1배,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대비 1.3배 높음.
/자료=정재호 의원실

맥쿼리에 대한 플랫폼파트너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맥쿼리인프라) 이사회가 주주총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를 통해 주총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MKIF 측은 플랫폼파트너스에게 주총 소집 권한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MKIF가 운용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적절성을 문제삼고 있는 만큼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플랫폼파트너스는 오는 9일 MKIF 운용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MKIF 측에서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오는 26일까지 MKIF가 주총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 주

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자산운용이 지난 12년간 맥쿼리인프라를 운용하면서 전체 분배금의 32.1%에 달하는 5353억 원을 보수로 가져갔다"고 밝히며 보수 과다 책정 등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MKIF에 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의 해임 안건을 다룰 주총 소집청구서를 보냈다.

플랫폼파트너스의 요구는 3%를 상회하는 운용보수를 다른 인프라펀드 평균수준인 1%로 줄이고, 성과보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총에서 펀드 운용사를 코람코자산운용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운용제안서를 통해 MKIF의 운용수수료를 매년 순투자자치의 0.15%만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매년 순투자자치의 1.25%를 받는 맥쿼리자산운용 보수의 8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논란에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현재 정부는 민자 SOC의 과도한 이용료 체계 개선을 위해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맥쿼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SOC의 이용요금에 다른 민자사업 도로와 비교해서 최대 10배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km당 요금은 88원이지만 맥쿼리가 운영하는 인천대교의 요금은 440원으로 5배 높은 수준이다.

정재호 의원은 MKIF가 성과보수를 폐지하거나 혹은 운용사를 교체할 경우 민자도로 이용요금도 줄어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KIF가 맥쿼리 자산운용에 쥐여주는 수수료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SOC 운용을 통해 내야 하는 수익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과거 우먼산 터널 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맥쿼리가 시혜적으로 요금을 내린 바 있다"며 "자산 재구조화를 통해 도로 이용요금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 재구조화란 기존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이용요금을 줄이는 등 투자계약 조정을 의미한다. /손영지 기자 sonyj301@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에서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

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 4명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징직·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결정이다. 증권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회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주가 잘못 입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유령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한 직원 21명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에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출석했다. 구대표는 "다신 한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